“통도사 의례, ‘신라 소리’ 계승했다”

통도사, 11월 2일 ‘제1회 통도소리 학술대회’

조석예불, 삼보이운 등 조명해
“현재도 살아 있는 전통” 강조
신라부터 이어진 중요 의례문화
성파 스님 “근원 시작 연구 필요”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통도사는 11월 2일 해장보각에서 ‘제1회 통도소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통도사에 전해지는 전통 의례가 신라부터 이어진 소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11월 2일 해장보각에서 ‘제1회 통도소리 학술대회’를 열고 통도사 의례 전통과 범음성의 현대적 가치를 살폈다.

학술대회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염불원장 법산 대종사, 율주 덕문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함께했다.

발표자들은 통도사의 예불과 삼보이운이 옛 형식만 차용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전승되는 ‘살아 있는 전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통도사가 조석예불에서 행해 온 11정례와 개산대재의 삼보이운 의식은 신라 시대부터 이어진 불교 음성과 의례문화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중요한 근거라는 설명이다.

양영진 국립민속국악원 학예연구사는 2010년과 2025년 새벽예불을 비교했다. 양 학예연구사는 “예불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음향기기 등이 도입되었지만, 전승의 핵심 정신과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신라의 소리가 지금도 예불 속에서 살아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원명 스님(염불대학원 교수사)은 개산대재의 중심의례인 ‘영축 삼보이운’의 명칭과 절차를 소개했다. 스님은 “역사 기록과 문헌을 근거로 통도사가 영남 범패 전통의 중심 역할을 해 왔다”고 설명하며 “의례 기록화와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소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대우교수는 “통도사 11정례는 사찰정화운동 이후 사라진 청규범패의 흐름을 이어 가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이어 스리랑카의 불치사리 ‘페라헤라’와 비교하며, 삼보이운이 해외 사례와 나란히 설명될 수 있는 의례 구조임에도 국내 인지도가 낮은 현고 장엄과 법구 복원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파 스님은 총평을 통해 “통도사 의례 전승 논의는 결국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라는 역사 인식 위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자장 율사는 당대 중국에 단순히 공부하러 간 유학생이 아니라, 황제가 직접 국빈으로 맞이한 인물이라는 기록이 중국 측 자료에도 분명히 남아 있다”며 “이 사실은 통도사 창건의 위상, 그리고 그 의례가 지닌 상징성을 재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도사의 의례 전통은 단지 옛날 방식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점과 정체성 자체가 분명한 역사적 기반 위에 놓여 있다. 발표자들이 오늘 다룬 문제의식이 단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려·조선 불교문화유산 국가지정유산 ‘보물’ 지정

‘안동 광흥사 응진전’ 조선 불교건축 변화 보여 줘
‘고려 오백나한도’ 몽골 침입 극복 원력 담은 수작

고려·조선 시대 불교문화유산들이 잇달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장(청장 허민)은 “조선 시대 불교 건축과 사찰 운영의 변화를 보여 주는 ‘안동 광흥사 응진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고 11월 3일 밝혔다.

‘안동 광흥사 응진전’은 창건연대가 명확하지 않으나, 망와에 기록된 글을 통해 1647년(인조 25년) 기와 공사를 했음을 알 수 있어, 그 이전인 조선 중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827년과 1946년 사찰의 큰 화재로 주불전이었던 대웅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됐으나 응진전은 중심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 화를 면한 이후로 사실상 광흥사의 중심 불전 기능을 수행하게 된 보기 드문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응진전의 공포는 조선 전기의 양식을 계승해 중기·후기에 이르기까지 불전 건축양식의 변화를 시기적으로 잘 보여 주는 형태를 지녀 학술적 가치가 높다”면서 “보물로 지정한 ‘안동 광흥사 응진전’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찰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는 적극 행정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가유산청은 “부처님의 힘을 빌려 몽골의 침입이 끝나기를 기원하며 조성된 ‘고려 오백나한도’와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등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보물로 지정된 ‘고려 오백나한도’는 13세기 몽골의 고려 침입 시기에 국난 극복을 위해 일괄로 제작된 오백나한도 500폭 중 한 폭으로, 2016년 보물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려 오백나한도와 함께 제작된 것이다. 지정 예고 대상은 제329 원상주존자(圓上周尊者)를 표현한 것이다.

한 폭에 한 존자(尊者)만을 담은 형식으로, 존자가 너른 바위에 걸터앉아 화면 상단 왼쪽에 있는 용을 올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존자의 얼굴과 자세에서 느껴지는 강인함과 역동감, 필선의 능숙한 구사 등 뛰어난 화격을 갖추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고려 오백나한도’는 고려 불화의 특징인 품격 높은 예술성과 신비로운 종교적 감성을 담고 있으며, 남아 있는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고려 불화 중 조성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함께 보물로 지정된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은 조성발원문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제작 시기 및 조각승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불상에서 보이는 얼굴과 이목구비의 표현, 신체 비례, 활달한 선묘(線描) 등 양식적 특징상 16세기 중엽에 조성된 불상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은 현존 수량이 극히 적은 16세기의 불상으로 희소성이 있다”면서 “과학적 조사를 통해 제작 기법이 명료하게 밝혀져 있어 불교조각사, 특히 조선 전기 소조불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신중일 기자


보물로 지정된 조선 시대 전각 안동 광흥사 응진전.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구하지 않으니 마음이 평온하네

以無所得無有功布

⑰ 이무소득 무유공포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이다. 오스만 제국 치하 크레타 섬에서 태어난 그는 평생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굴종과 지배에 맞서 인간의 자유를 추구했다. 그의 대표작 〈그리스인 조르바〉는 인간이 온전한 주체로서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생생히 보여 준다.

그리스 정교 문화권에서 자랐지만, 그는 붓다·니체·베르그송 등의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탐구는 인간이 만든 관념과 문화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로 서고자 한 그의 지향을 잘 드러낸다.

그의 묘비명은 불자들에게도 낯설지 않다. 그 말속에는 〈반야심경〉을 비롯한 대승불교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반야심경〉 전반부는 오온·십이처·십팔계·십이연기 등 인간이 만들어 낸 모든 존재가 ‘본래 있지 않음[空]’을 통찰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이어진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다.”

여기서 ‘얻을 것이 없다’는 말은 ‘부질없이 갈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경전에는 이를 ‘무소득(無所得)·무소구(無所求)’라 한다. 삶의 모든 현상은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므로, 그것의 실상은 공(空)이다. 이 사실을 통찰할 때 우리는 집착하거나 갈구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기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기에 두려움도 없다. 이 점에서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은 〈반야심경〉의 사상과 자연스럽게 맞닿는다.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나 권력의 욕망을 버린다는 뜻에 그치지 않는다. 〈대품반야경〉은 이렇게 말한다.

“만약 열반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보살이 아니다.”

아무리 선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도 그것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순간 자유와 평온에서 멀어진다는 뜻이다.

‘하되 함이 없이 하라(爲而無爲)’.

속도와 효율에 매여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려놓고, 해야 할 일은 관념과 집착을 벗어나서 하는 것이다. 밝은 가을볕에 마음이 한가롭다. 더 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화순 불암사 주지〉


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
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
‘연화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업무협약식
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현대불교신문’
- 행장 및 업적 정리, 보도자료 생산, 부고
- 추모 리플렛, 호외 발행, 언론사 응대 등
- 영결·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
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10-4727-6065